

노년 초기 재혼자의 결혼성립 과정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The Marital Process of Comple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Remarried People at Early Old Age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전북지역)

강사 최영아

Dept. of Family Science, Korea National Open Univ.(Jounbuk Area)

Lecturer : Young Ah Choi

◀ 목 차 ▶

I. 서론	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재혼성립 과정	VI. 요약 및 결론
III. 결혼만족에 대한 관련 변수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the marital process of comple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personal interview.

Fifteen respondents who had been remarried for over 5 years were chosen by a researcher independently from a province in South Korea and comprised 8 females(over 55 ages) and 7 males(over 60 ages).

The Results were as fellows:

1. The Remarriage process of completion was an important process for arranging a marriage with a partner. This process was reached through the remarriage motive of the remarried person who was chosen by introduction of a family member or a friend and through meeting with a familiar friend. The factors were remarriage motive, meeting with a spouse, children's response about remarriage, and remarriage decision.

2. The Success of the marital process of completion depended on a support from families and friends in order to develop their conjugal relation. Therefore conjugal relation was an important relation in marital satisfaction. Particularly, the parents-child relation, relation between a stepbrother and stepsister, and social support for remarried persons were important relations in their marital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재혼자(remarried person), 결혼성립 과정(marital process of completion),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Young-Ah Choi, Dept. of Family Scienc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752-6 Kumam-dong1 Duckjin-gu Jounju-city Jollabuk-do 561-801, South Korea Tel: 82-63-254-8221~3 Fax: 82-63-254-5756 E-mail: yachoi1954@yahoo.com

1. 서론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은 인류가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를 구성한 이래 계속되어 왔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통해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도 보다 광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들어 이혼과 재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홀로된 사별 및 이혼자들의 재혼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재혼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혼인형태에 따른 혼인구성 비율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재혼인 경우(재혼남성+재혼여성, 재혼남성+초혼여성, 초혼남성+재혼여성)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10.6%에서 2002년에는 21.0%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통계청, 2003). 예컨대 2003년 결혼한 부부중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이 12.6%, 지난해 결혼한 8쌍의 부부 중 1쌍은 남녀 모두 재혼이라는 뜻이며, 부부중 어느 한쪽이 재혼인 경우까지 포함하면(22.3%) 지난해 네번의 결혼식 중 한번은 재혼부부를 위한 것이었다(중앙일보, 2004).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미국사회의 재혼가족 비율(20%)(Olson, DeFrain과 Olson, 2002)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높은 재혼율을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전술한 통계청 자료는 이제 재혼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 않는다(김연옥, 1999: Cater & Glick, 1976), 재혼은 가족재구성 측면에서 이혼의 적응과정상의 또 하나위 치유방법이 되기도 한다(박충선, 2001). 그리고 재혼이 이혼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혼은 재혼자의 충원으로 가족원 전체가 재혼가족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낙인과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여전히 피해의식을 갖는 계층이 속출하고 있어 재혼가족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혼은 초혼과 달리 가족관계, 친척,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 선입견과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

간동안 노력해야 하는 가족구성을 위한 이중적인 노출과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계숙(2004)도 재혼가정은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등과 함께 다양한 가족 중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대상으로 조차 수용되지 못했던 초기 단계의 연구를 보면 재혼은 이혼연구의 일부로서 재혼율과 재혼과 자녀문제를 조사(최재석, 1982)하거나 가족과 혼인연구에서 부녀자 재혼을 소개(최재석, 1983)하기 시작한 문헌조사가 있었다. 그 다음 재혼연구의 시작 단계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재혼가족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실제 재혼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흡했다. 최근 들어서는 재혼 교육프로그램 개발(박은주, 2004), 재혼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경향(조연제, 2003), 재혼가족의 적응(장혜경·민가영, 2002)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노년기¹⁾ 분야에 있어서도 재혼 만족에 대한 변수 연구(최영아, 2003)가 있기까지 1990년 이후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 재혼자의 결혼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재혼을 통한 생활변화, 재혼가족의 가족간의 문제점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제 재혼이 가족학의 한 분야로서 상당한 이론

1) 노년기는 노화 현상의 시기와 노화의 속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장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구분은 60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과학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노년기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어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다음 노인에 대한 정의는 국가나 사회마다 다양한 배경과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 규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초혼이 아닌 재혼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 자신이 심리적 연령·신체적 연령(성생활 욕구 및 가능여부 포함)·사회적·그리고 문화적으로 초혼자가 인식하는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노인 재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연령대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기동(1993)은 여자 50~65세 까지, 남자 60~75세 까지이며, 김은진(1995)은 남녀 노인 50대 이상, 최영아(2003)는 남성노인의 경우 60세 이상, 여성노인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이란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의 경험에 비추어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적 구축과 연구결과를 얻어냄으로서 재혼에 대한 이해와 규명되지 않은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데 공헌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물을 살펴 볼 때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전춘애 외 2인(1998)과 김연옥(1999)²⁾과 노년기 결혼만족의 관련변인을 연구(최영아, 2003)³⁾한 실증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결혼의 필수단계인 결혼성립 과정이 재혼자의 결혼만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결혼성립 과정은 결혼하려는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 교제하거나 또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이성과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전 교제자와의 비교, 상대방과의 적응과정 등을 통해서 결혼하게 된다.

재혼자의 결혼만족은 재혼자가 이전 결혼 생활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전혼만족의 정도가 중요하며, 특히 재혼가족이 초혼과 달리 복잡하고 경계선이 모호함⁴⁾으로써 부부간의 관계(의사소통, 친밀감 및 애정표현, 경제적인 문제, 여가활동), 부모-자녀(친자녀·계자녀)간의 관계,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에 해당되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 이웃, 사회단체 등의 도움이나 재혼가족내의 갈등해결의 개입정도가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노년기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높아지는지 또는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윤영, 1990)고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재혼자의 노년기 결혼만족을 조사한 연구(최영아, 2003)⁵⁾를 보면 결혼지속기간이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수치상으로 결혼만족을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결혼성립 과정과 결혼만족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특성상 조사 거주지를 남부지방으로 한정하였고, 재혼후 적어도 5년 이상된 자를 선정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는 재혼자

의 결혼성립 과정, 재혼자의 가족관계, 개인사, 만족감, 기타 등을 심층면접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재혼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인식을 위해 재혼성립 과정의 관련 요인들을 알아본다. 둘째, 재혼성립 과정의 관련 요인들이 재혼자의 재혼후 결혼만족에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들은 재혼예정자들의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결정에 도움을 주고, 실제 재혼자의 기초적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I. 재혼성립 과정

1. 재혼동기

재혼이라는 현상은 이제 이혼 및 사별등의 현상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선택'의 방안이 되고 있다.

재혼은 남성의 경우 재혼의 문제가 여성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에게는 이미 가족관계의 관행이 만들어져 있는 가정에 불쑥 들어가는 데 반하여, 남성에게는 자신의 가정에 여성이 새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조옥라, 1996).

일반적인 재혼 결정요인은 이혼 연령이 적을수록, 초혼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가 유의한 결정요인

2) 전춘애 외 2인(1998)의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자 64명이 응답했으며, 김연옥(1999)의 재혼가정 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총 48명이 응답했다.

3) 최영아(2003)의 재혼자의 노년기 결혼만족도에 관한 실증조사에서 조사대상자 206명이 응답했으며, 이를 검증 및 보완하기 위한 사례조사에서 실증연구와 관계없는 조사대상자 20명이 응답했다.

4) 가족경계의 모호성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누가 우리 가족에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가가 분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5)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최영아(2003)의 박사학위논문의 사례조사 대상자(총 20명)중 일부(15명)임.

으로 분석되었다(서문희, 1993). 또 다른 연구결과(장혜경·민가영, 2002)를 볼 때 남성의 재혼동기는 외로움 극복, 상대방 사랑, 성생활 욕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상대방 사랑, 다음으로 집안의 경제적 도움으로 나타나 여성의 재혼은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있다.

노년기 재혼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박경란·임춘희, 1996; 이윤숙, 1983; 이정덕·최영아, 1997; 최영아·이정덕, 1996; 한혜신, 1996; Bograd, 1992; Enlight, 1994; Mckain, 1969, 1972; Vinick, 1978)를 살펴보면, 사별 또는 이혼한 재혼 노인의 주된 재혼동기는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비롯하여 동반자가 필요해서, 의사소통,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 친밀성, 몸시중, 자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수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같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재혼은 초혼과 유사하나 가족관계·친척·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더 복잡한 관계에 노출되거나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결혼을 언제, 누구의 소개로, 어떻게 만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재혼동기가 결혼만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혼과정

일반적으로 재혼은 초혼과 같이 결혼성립 과정이 비슷하며 그 첫째로, 재혼의 권유 및 관심 둘째로, 재혼 상담 및 자녀들로 부터의 동의 셋째로, 교제기간 및 배우자선택 기준 넷째로, 재혼결정 등의 순서를 밟게 된다.

재혼은 주변사람들이 재혼자에게 지지나 도움이 많은 경우 재혼이 성립하기 쉬우나 주변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거나 도움이 없는 경우 재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재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 극복, 상대방에 대한 사랑, 성적욕구,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 또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재혼을 한다. 또한 재혼은 전혼의 경험과 자녀유무 등의 문제와 이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어 무척 까다

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 재혼상담 및 자녀들로 부터의 동의가 있는데, 관련 연구(장혜경·민가영, 2002)를 보면 현 배우자와의 만남은 남성의 경우 '친구 및 지인의 소개로'(35.7%), '재혼정보회사 및 상담소를 통해'(23.8%)가 주를 이루고 '사업 및 직업상으로', '가족의 소개로', '예전에 알던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친구 및 지인의 소개로'(34.9%), '사업 및 직업상으로'(23.8%)가 가장 많고, '재혼정보회사 및 상담소를 통해서', '가족의 소개로', '예전에 알던 사람' 순이었다. 현 배우자와의 만남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70%정도가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30%정도만이 그전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연구(박경란·임춘희, 1996; 최영아, 2003)에서도 재혼자의 대부분이 주변사람들과 친척 등의 소개로 현 배우자를 만났다고 한다. 셋째로, 현 배우자와의 교제기간을 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 약 1년 2개월이었으며, 여성은 약 1년 4개월이었다(장혜경·민가영, 2002).

노년기 재혼의 경우 본 연구자의 연구경험에 비추어 볼때 젊은이들과는 달리 교제기간이 약 6개월~1년 정도 사귀는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서 사귀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도 서로 결혼을 승낙하기도 한다. 배우자에 대한 선택기준으로는 이정덕·최영아(1997)와 한혜신(1996)의 면접결과를 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대체로 상대방의 건강, 성격, 사랑됨됨이를, 여성노인은 상대방의 경제력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동의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남성노인들은 이혼한 여성보다 사별로 혼자된 보다 젊은 여자를 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재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혼은 자녀들의 이해와 권유가 있으며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이나 호적 문제로 큰 갈등이 없는 한 재혼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나, 부모의 재혼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또는 자녀가 이전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이 있는 경우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재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다른 연구(조기동, 1993)

에서는 재혼이 젊은 층은 장래성에 크게 비중을 둔다면, 노인들은 현재의 건강상태, 경제력, 직업유무, 미혼자녀의 유무 및 자녀와의 관계 등이 배우자선택, 즉 재혼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재혼과정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주는 선행연구(장혜경·민가영, 2002)를 보면 재혼 직전과 현재의 결혼생활 만족감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남녀 모두가 재혼하기 직전보다 재혼후 결혼생활이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재혼성립 과정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데 앞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을 조율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재혼결정을 자신이 사귀어 볼 때, 자녀의 동의를 받거나 주변 분위기를 재혼자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을 때, 결혼성립 과정은 결혼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혼만족에 대한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대한 관련 변수에 대해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크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로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혼자들의 부부관계는 전혼생활에서의 경험과 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갈등의 해결방법에 따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재혼가족의 부부관계를 보면 주로 초혼가족의 부부관계와 어떻게 다른가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혼 당사자들은 첫번째 결혼한 부부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행복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보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첫번째 결혼과 비슷한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믿음이나 기대 등에 있어서 첫번째 결혼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재혼자의 경우에는 혼인 그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혼할 확률이 초혼인 경우에 비해 높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혼과 함께 재혼 비율이 높은 서구 사회에서는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우리 나라에서는 서구사회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보다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일정하지 않다. 전춘애의 2인(1998)에 의하면 재혼가족의 문제의 본질을 부부관계로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좋은 부부관계를 들고 있다. Pasley et al.(1993)도 부부관계가 계부모-계자녀관계와 함께 재혼가족의 적응에 핵심적인 관계라고 한다.

한편 사별로 인한 노년기의 재혼은 친부모가 없고, 자녀들의 동의를 통해 이루지는 경우가 많아 이전 가족체계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대감도 적을 것이다. 선행연구(최영아, 2003)를 보면 재혼한 부부가 배우자를 삶의 동반자 또는 지지자로 인식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결혼만족이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부부관계가 초혼가족에서와 같이 재혼가족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배우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성립 과정은 재혼부부가 가지는 그들만의 경험으로서 심리적 유대를 견고히 하고, 이러한 결혼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결혼만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자녀관계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는 가족관계 내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애정적인 관계이며,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 반면에 재혼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재혼자에게는 친자녀가 되지만 새로운 배우자에

게는 계자녀가 되고 있다. 이것은 재혼가족내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할 때 출발점이 되고 있다.

재혼가족내의 부모-자녀관계는 첫째, 친부모-친자녀관계(전혼자녀 포함) 둘째, 계부모-자녀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친부모-친자녀관계는 친자녀가 전혼 자녀이거나 재혼 후 출생한 자녀(mutual child)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임춘희(1996)는 재혼 후 출생한 자녀는 생모에게 재혼가족에서의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의지대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노년기 재혼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혼 후 독립해서 살고 있는 노부부와는 심각한 갈등을 보이지 않는다(이정덕·최영아, 1997; 최영아·이정덕, 2000; 한혜신, 1996). 이와달리 임춘희·박경란(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재혼 노인들은 새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의 소홀한 태도에 불만을 느끼며, 재혼으로 인해 친자녀들간의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2) 계부모-계자녀 관계는 계부모는 초혼이나 재혼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녀가 성인자녀이나 미성년 자녀이나에 따라 계부모-계자녀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Pasley et al(1993)는 계부모-자녀 관계가 전반적인 재혼가족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선행연구(장혜경·민가영, 2002; Santrock & Sitterle, 1987)에 따르면 계부모는 성별에 따라 다른 식의 경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부보다 계모인 경우 역할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모의 역할적응이 더 어려운 이유는 부모로서 가정내에서의 가사, 양육, 자녀들의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등의 역할기대가 크다는 점과 계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는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혼 자녀를 포함한 친자녀와 계자녀가 재혼 부부의 개인적인 특성과 주어진 환경속에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3.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는 재혼가족은 자녀들간의 이복형제와 자매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의 친 형제자매와 이복형제자매간의 갈등 및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재혼가족의 증가추세에 비해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가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

Skolnick et al(1994)에 따르면 양쪽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자녀들과 함께 하는 재혼에서 새로운 형제자매들간의 관계의 결합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결합이다(장혜경·민가영, 2002 재인용). 재혼가족만이 가지는 특성인 모가 다른 형제, 부가 다른 형제들의 존재는 재혼가족의 가족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친형제들의 관계는 출생순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비해 이복, 이복형제(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다. 반면에 이복, 이복(의복)형제들간에 사이가 좋을 수록 전체 재혼가족의 통합에 긍정적(Skeen, Covi, & Robinson, 1985)이므로 재혼모의 역할수행에도 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김연옥, 1999 재인용). 한편 Ahrons(1994)은 아이들이 이혼보다는 재혼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국내의 관련연구로는 장혜경·민가영(2002)은 면접대상자(총 15명) 중 본인의 친자녀와 배우자의 친자녀가 함께 사는 6사례중 단지 한 사례만이 자녀간의 불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이복형제자매간의 갈등이 결혼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는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요청된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나 지원

6) Skeen, Covi, & Robinson(1985)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이복형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이복형제라고 칭하였다.

을 받은 것으로서 재혼성립 과정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지원(1985)은 가족, 친족, 이웃, 동료, 상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최영아(2003)는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학교,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의 지원 및 지지가 결여되어 있어, 재혼가족 구성원들은 대체로 초혼의 핵가족처럼 행동하거나 계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혼가족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전춘애 외 2인(199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혼한 사람들은 정서적, 정보적, 충고적 지지에 대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며, 이정덕·최영아(1997)는 재혼노인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 친구나 이웃간의 지지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재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국의 연구자들의 경우, Booth와 Edwards(1992·1991)는 재혼이 초혼보다 더욱 헤어지기 쉬운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것임(Coleman, Ganong, & Fine, 2000 재인용)을 지적했다. Coleman과 Ganong(198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Ganong과 Coleman(1994)도 재혼가족은 일반적으로 제도화된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Johnson(1980)은 친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치가 다양하고 가치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혼가족이 대처해야 할 문제가 많아지고 그만큼 어려움이 증가된다고 하였으며, Cherlin(1978)은 재혼가족의 친족간의 관계에서는 복잡하게 얽힐수록 재혼가족의 역할모호성이 증대된다고 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관계형성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Walsh, 1992, 재인용).

이와같이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재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 또는 재혼가족내의 갈등해소에 중요한 중재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재혼한 지 5년 이상된 남녀(여성 55세, 남성 60세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 당시에 결혼생활에 문제(이혼소송, 이혼상담, 별거)가 있는 대상자를 배제하였다. 특히 표집선정을 중·노년기에 있는 재혼 노인을 택한 이유는 노년기는 대체로 재혼한 부부만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재혼가족의 자녀양육 문제에서 해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혼자들의 안정적인 결혼성립 과정이 그들의 결혼만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를 노년기로 한정하였다. 조사지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였고 임의표집⁷⁾으로 총 15명(남성: 7, 여성: 8)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2. 조사방법

자료수집은 10개월에 걸쳐서 조사되었으며, 그들의 결혼성립 과정과 결혼만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지침서는 재혼자가 결혼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상과 갈등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여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혼관련 특성, 재혼성립 과정, 재혼자의 결혼만족을 알아보기 위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 사회적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은 연구자가 주변의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하였다. 면접은 재혼자의 가정에서 1~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

7)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최영아(2003) 박사학위논문인 사례조사 대상자, 총 20명중 남부지방에 거주한 자로서 연구자가 본 논문에 보다 유용하리라고 판단된 15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했음. 단 사례조사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심층면접이 이루어 않을 수 있음을 밝힘.

며, 면접은 1회,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와 친밀감을 가진 뒤에, 연구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심층면접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양해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녹음된 내용과 재혼생활에 대한 애환을 경청한 내용중 재혼 성립 과정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전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와 사별후 재혼한 9사례와 이혼후 재혼한 6사례, 총 15사례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명, 60대가 7명, 70대가 6명, 80대가 1명이었다. 교육수준은 남성노인의 경우 대졸이 2명, 초등졸이 5명, 여성노인은 대졸이상 1명, 고졸이 1명, 초등졸이 4명, 무학이 2명이었다. 직업유무는 남성노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여성노

인들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사일 만을 종사하거나, 손자녀 돌보아 주기, 자영업 등을 하고 있었다. 부부의 수입은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100만원 이상이었고, 대체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상태는 여유로운 편이었다. 종교는 4명을 제외한 10명의 노인이 종교가 있었다.

2) 재혼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인 재혼부부들의 재혼관련 특성은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재혼시 본인 연령은 최저 32세에서 최고 70세까지 이었다. 재혼지속년수는 최하 6년부터 최고 42년까지로 평균 22년 이었다. 재혼의 성격으로는 법률혼 9사례, 사실혼이 6사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9·15)는 임춘희(1997) 연구에서와 같이 노년의 재혼은 재산문제로 인한 가족갈등의 방지와 재혼이 시급한 홀로 된 남자노인의 현실적인 욕구의 절충적 해결방안으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택한 경우이다. (사례, 5)의 경우 배우자의 전처가 생존해 있으나 재혼후 친모이상으로 충실한 역할을 통해 자신의 임지를 굳혀온 사실혼의 경우이다. 이와 같이 재혼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현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최저 2년에서 최고 13년으로 평균 7년 이었다. 이복형제자매의 유무는 2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자녀가 있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	종교
1	여	56	대졸이상	전도사	200만원	기독교
2	남	78	초등졸	무	100만원	무
3	여	76	초등졸	무	100만원	무
4	여	62	초등졸	무	60만원	무
5	여	67	초등졸	철학관	60만원	불교
6	남	70	초등졸	무	60만원	불교
7	남	67	초등졸	무	60만원	무
8	여	66	고졸	무	150만원	천주교
9	남	79	초등졸	임대업	100만원	불교
10	여	74	무학	무	100만원	불교
11	여	75	무학	임대업	150만원	기독교
12	남	82	대졸	장로	150만원	기독교
13	남	69	초등졸	무	150만원	기독교
14	여	61	초등졸	자유업	150만원	천주교
15	남	69	대졸	목사	200만원	기독교

2. 재혼과정

재혼은 당사자의 재혼동기와 배우자 선택조건 등이 수반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소개나 개인적인 이성교제를 통해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혼성립 과정에 따른 1) 재혼동기, 2) 배우자와의 만남 및 선택 기준, 3)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4) 재혼결정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 보았다.

1) 재혼동기

재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 극복, 경제적

〈표 2〉 조사대상자의 재혼상태에 대한 특성

사례수	성 별	재혼시 본인 연령	재혼 지속기간	초혼 해체사유	혼인 신고여부	배우자와 연령차이	자신의 친자녀	배우자의 자녀	재혼 후 자녀
1	여	50	6	이혼	사실혼	13	딸 1	아들(3), 딸(2)	없다
2	남	36	42	이혼	법률혼	2	아들(1)	없다	아들(2), 딸(3)
3	여	34	42	이혼	법률혼	8	전혼자녀 없다	아들(1)	아들(2), 딸(3)
4	여	42	20	이혼	법률혼	8	아들(1), 딸(1)	아들(5)	없다
5	여	32	35	이혼	사실혼	3	없다	아들(2), 딸(1)	없다
6	남	35	35	이혼	사실혼	3	아들(2), 딸(2)	없다	없다
7	남	32	35	사별	법률혼	3	아들(3), 딸(1)	딸(1)	아들(2), 딸(1)
8	여	53	13	사별	법률혼	11	아들(1), 딸(3)	아들(1), 딸(1)	없다
9	남	57	22	사별	사실혼	5	아들(3), 딸(3)	아들(1), 딸(2)	없다
10	여	52	22	사별	사실혼	5	아들(1), 딸(2)	아들(3), 딸(3)	없다
11	여	63	12	사별	법률혼	7	아들(1), 딸(2)	아들(2), 딸(2)	없다
12	남	70	12	사별	법률혼	7	아들(2), 딸(2)	아들(1), 딸(2)	없다
13	남	58	11	사별	법률혼	8	아들(1), 딸(3)	아들(2), 딸(1)	없다
14	여	50	11	사별	법률혼	8	아들(2), 딸(1)	아들(1), 딸(3)	없다
15	남	63	6	사별	사실혼	13	아들(3), 딸(2)	딸(1)	없다

인 보탬, 상대방에 대한 사랑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재혼을 하고 있다.

친정집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또 거저서 오래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결혼을 해야 했어요.(사례, 3)

전 남편이 얼마나 가정을 몰라라했는지, 도저히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되었고, 다시 재혼을 결심했어요.(사례, 4)

위의 사례들은 이전 배우자와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혜경·민가영(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여성의 경우 이혼후 경제적 필요에 의한 현실적 문제가 재혼동기가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인들의 경우 재혼동기로는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이유로서 외로움 극복, 동반자 필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획득, 애정을 주고도 싶고 받고도 싶어서, 성인자녀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독립하기 위해서(김양희, 1994; 박경란·임춘희, 1996; 서병숙·김은진, 1996; 이윤숙, 1983; 조기동, 1993; 최영아·이정덕, 1996; 이정덕·

최영아, 1997; 한혜신, 1996), 건강을 위한 몸시중(김태현·한혜신, 1996),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들과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독립하기 위해(이정덕·최영아, 1997) 등을 재혼 동기로 들고 있다. 다음은 이전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경우 외로움 극복과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재혼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자.

이전 남편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저도 많이 외로웠고 애정이 필요했어요. 그 때 동료 전도사의 재혼 권유는 솔직히 싫지 않았어요.(사례, 1)

그러나 남성노인의 경우 법률혼인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헤어져 외로움 극복을 위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사별의 상처로 인한 외로움 극복을 위해 재혼을 희망하기도 한다.

그당시 나와 전처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내가 많이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안사람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제끝에 애정없는 본처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안사람에게 내가 먼저

같이 살자고 청했어요.(사례, 6)

말할 필요도 없이 사별의 상처가 컸고, 혼자 지내기가 두려워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사례, 7)

다음은 전처와 헤어지고 난 후, 자녀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발생할 본인의 부양문제나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자존감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혼을 희망하고 있다.

안사람과 사별후에 내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나에게 잘 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분가했어도 잘 하고 있지만 세대차이도 있고 (중략). 그래야 서로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시방사람들은 노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사례, 13)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 새로운 가정에 대한 바램, 그리고 상대방의 애정이 필요해서 재혼을 희망하게 된다. 반면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삶의 외로움을 느껴 가족, 친족, 이웃,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고립감을 쉽게 느끼게 되거나, 자신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독립, 외로움 극복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등이 재혼동기가 되고 있다.

2) 배우자와의 만남 및 선택기준

일반적으로 재혼자들은 주변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거나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성교제를 통해 재혼을 결정하게 된다. 남성노인의 경우 상대방의 건강, 성격, 사람됨됨이를, 여성노인의 경우 상대방의 경제력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친구의 소개로 안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안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들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건강하고.(사례, 6)

성당에 다니는 신자가 소개했는데, 믿음생활은 없지만 학식이 높고 생활여건도 좋다고 해서 (중략). 그래서 신앙생활도 권하고 싶고(사례, 8)

그리고 상대방의 사람됨됨이가 배우자 선택의 조

건이 되었다.

목회활동을 하는 친구의 소개가 있었어요. 소개받은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다음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건강도 좋고 겸손함까지 있으시다기에.(사례, 1)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상대방이 마음에 있지만 자식의 동의가 필요한 배우자의 선택조건도 있었다.

우리집 아저씨가 직접 나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러나 내 입장은 자녀들의 동의없이 재혼할 용기는 없었어요. 친근감이 가는 애를 불러 먼저 상의를 한 후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알렸어요.(사례, 14)

또한 이성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격과 건강 등을 파악한 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찍부터 동네에 양전한 과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넣어두었다가 일대일로 만나 내가 먼저 사귀어 보자고 했죠.(사례, 13)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성격이나 건강도 좋았고.(사례, 3)

이와 같이 재혼자들은 주변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거나, 상대방의 사람됨을 보고, 상대방을 소개 받은 후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과 이성교제를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배우자 선택과정은 선행연구(박경란·임춘희, 1997; 이정덕·최영아, 1997; 한혜신, 1996)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재혼노인들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자신의 결혼조건에 적합한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재혼자들은 재혼하기로 결정한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재혼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가 안사람을 자주 만나러 다니니까 아이들도 자꾸 따라나섰어요. 오면서 가면서 아이들에게 새엄마를 얻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곤 했어요.(사례, 6)

애들이 내 결혼생활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편과 사귀는 것을 알고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재혼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권유했어요.(사례, 4)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죠. 내가 <따로 살고 싶다>고 하자, 아들 며느리들이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염려들은 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사례, 13)

내가 자식들한테 사람들이 권유해서 맞선을 보았다고 하니, 자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상대방을 알게 된 이후로는 잘했다고 했고.(사례, 14)

노부모의 재혼에 대해 자녀가 보인 반응중 이전 부모에 대한 충성심의 갈등과 본인의 장래를 염려한 나머지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재혼노인의 사려깊은 노력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해 지기도 한다.

재혼에 대해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대부분 내 입장을 알고 있는 터라 찬성했지만, 미혼 막내 딸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 인지 울고 불고 난리였나 봐요. 사실 말을 바꿔서 해보면 목회활동도 신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홀로 사는 게 좋아보이질 않을 거예요. 사실 내 자신도 여러가지가 어렵고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더구나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러나 새로운 가정을 얻기 위해서 내 입장으로서 마음 아파하는 딸아이를 여러차례 설득을 시켰고 저 위로 언니 오빠들의 노력도 도움이 크게 되었죠. 그래서 안정을 되찾을 때 까지 잠시 기다렸어요.(사례, 15)

재혼한 남성노인의 경우 본인이 재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후 자녀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자녀의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사례, 15) 당사자와 기혼 자녀들의 노력으로 현실적으로 재혼의 필요성을 이해 시킨 후 성인자녀의 동의를 구하는 진통을 거치기도 한다. 여성노인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소개를 받아 상대방을 파악한 후 본인이 결정하거나 자녀에게 동의를 구하는 신중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은 노부모 부양문제, 유산상속 등의 부담과 기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4) 재혼결정

면접 결과를 보면 재혼이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의 소개나 권유로 이루어진 후 이성교제가 진행되면서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대체로 자신 스스로가 하고 있다.

재혼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내가 맘에 있는 사람과 사귀어 본 후 재혼을 결정했어요.(사례, 2)

새로운 생활을 위해 상대방과 일단 사귀어 본 후 내가 스스로 결정했어요.(사례, 3)

초혼은 부모님이 결정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했어요.(사례, 4)

이혼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친정동네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했어요.(사례, 5)

애정이 없는 결혼을 그만 두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과 사귀어보고 결정했어요.(사례, 6)

성인들인데 자신이 결정해야 하지요. 제가 사귀어 보고 재혼을 결정했어요.(사례, 7)

그러나 노년기 재혼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재혼결정이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 행해졌다.

내가 재혼할 때만 해도 사회에서 재혼을 쉽게 생각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나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결정했어요.(사례, 10)

주변에서 재혼권유가 몇차례 있었어요. 알고보니 상대가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사례, 12)

때로는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서 결정하기도 한다.

복지관의 행사에 참여했다가 연합회 회장으로 부터 적극적인 소개가 있었어요. 오래 사귄 필요가 없었어요.(사례, 9)

특이하게도, 자녀들의 권유에 밀려 재혼 상대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를 아껴온 선배 신자 분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면 그 분이 빨리 죽는 경우가 많다>면서.(사례, 15)

이와 같이 남녀 재혼자들은 초혼과 비슷하게 외로움 극복과 경제적인 보탬, 배우자와의 사랑을 원해서 재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남녀 노인들은 재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건강, 성격, 사람됨됨이, 그리고 경제력을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자신과 배우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동의를 얻는 신중함을 보였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혼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3. 재혼생활에 따른 노년기 결혼만족⁸⁾

재혼자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결혼만족은 크게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부부관계

재혼자의 결혼생활에 따른 부부만족은 크게 (1) 의사소통, (2) 친밀감 및 애정표현, (3) 경제적인 문제, (4) 부부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의사소통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최영아, 2003). 즉 의사소통을 잘하는 재혼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갈등해결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춘애 외 2인, 1998). 또한 초혼에 비해 재혼부부들은 대체로 보다 나은 의사전달 관계를 가지며, 의견이 불일치 할 때도 노년의 배우자의 중요성과 우의를 위해 이해와 양보를 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노년 초기 재혼자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재혼전과 재혼후의 만족감, 자녀문제, 생활비 배분, 집안의 대소사, 여가활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면접결과 노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재혼전과 재혼후의 만족감의 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솔직히 재혼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재혼한 후로는 목사

님과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죠. 다만 딸아이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중략). 그러나 목사님이 목회활동이나 가정일에 대단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좋아지겠죠. (사례, 1)

나홀로 살고 있을 때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죠. 팔씨도 안할 것이고 별로 부족한 것도 없어서 오손도손 살아요.(사례, 13)

저는 재혼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만족해요. 무엇이 특별히 부족해서 재혼한 것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상대가 적어도 나만큼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보다 나은 위치에 있고 해서 결정했어요. 사실 나이들어서 친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보니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좋아요.(사례, 8)

재혼자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친자녀와 계자녀문제로 구분되는데, 친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재혼후에도 노후생활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나 당사자에 따라 자녀와의 친밀감이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한다. 반면 계자녀의 경우는 의례적인 관계를 갖거나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자식들이 일터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전화도 주고 고향 근처에 지나칠 때 집에 들러서 가고 하니 자식 정이 돈독해지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와 늘어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또 가깝게 사는 애들이 자주 집에 출입하니 식사도 하고 속있는 말도 오고가고 하는데 자식들이 우리들의 버팀목이죠. 게다가 안사람 딸도 별일 없는 것 같고.(사례, 7)

우리 생활에 자녀들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로서는 후회없을 만큼 했으니까. 어쩌면 애들 셋이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인생 모두라고 볼 수 있어요. 때때로 애들이 찾아오거나 전화오면 우

8) 노년기 결혼만족도란 재혼은 초혼과는 달리 그 성격이 복잡하고 가족내의 특징과 경계선이 모호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재혼자는 결혼생활의 만족 또는 불만족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그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재혼자가 재혼후 현재까지 살아온 결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라고 할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적인 욕구충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 부부가 이일 저일 물어보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하고, 또 운전 조심하라는 등 말하기가 바빠요. 또 우리도 가끔 저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살지만 그래야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부부의 대화도 늘어나고.(사례, 5)

이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다보니 말쑥잡이 많이 되죠. 그러나 부모로서는 요즘세상이 험하니깐 늘상 <조심해라> <별 일 없나> 라고 물으면서 지내죠. 몇년에 한번쯤은 애들이 저희 친 엄마 이야기도 간혹 들려주곤 하면 어색한 분위기도 있지만 나는 안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때때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새엄마 은공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곤 해요.(사례, 6)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재혼후 배우자 가정에 자신의 역할이 많은 경우와 친자녀와의 만남의 기회가 서로 용이하지 않아 대화의 빈도가 적어지는 경우 심리적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그간 우리집 아저씨 자녀들이 자주 오는 편이어서 준비하느라 역할이나 대화도 많았어요. 같이 외출이라도 하면 자녀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우리 부부의 모습이나 심정도 좋은데. 그러나 내 친 딸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중략). 딸 들은 엄마와 교류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데.(사례, 8)

재혼한 남성노인의 경우 새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는 대체로 의례적이며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내가 안사람 자녀들한테는 오가는 일은 없지만 전화가 걸려오면 안부정도는 묻고 안 사람을 바꿔주죠.(사례, 9)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니까 보통으로 안부정도를 묻고 안사람을 바꿔주죠.(사례, 13)

생활비 배분은 대체로 남성노인들이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유형이 각각 다르다.

목사님이 주시는 한달 생활비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보니 때때로 의견이 마찰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과외비를 줄이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딸애가 배울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과 자주 대화를 갖은 결과 <자녀들의 원조를 좀더 늘려보겠다>

는 생각이신 것 같어요.(사례, 1)

우리집 양반이 노후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생활비 챙기는데 꼼꼼해요. 경제력이 많으신 본인때도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사례, 10)

우리 집 아저씨는 벌어서 저에게 맡기는 스타일인데, 생활비 사용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달라고 하세요. 가끔 제가 조금씩 더 드리면서 <아껴 쓰세요>라고 하면서 웃을 때가 많았어요.(사례, 4)

우리는 생활비 걱정 안해요. 우리 집안에서 채소를 길러먹으니까. 우리집 아저씨가 저에게 잔잔한 칭찬을 많이하세요. 채소들도 예뻐하시고.(사례, 11)

우리는 서로가 수입이 있어요. 안사람은 집에서 나오는 돈이 적지 않고 (중략). 그러나 결국 내가 쓰고 다니는 돈이 더 많으니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사람 말이 고마울 때가 많아요. 챙겨주는 기쁨이 있단가요?(사례, 12)

그러나 여성노인이 자영업을 하면서 경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비록 내가 활동을 다하고 있지만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용돈 만큼은 형편대로 챙기고 있어요. 어디 혼자 벌었나요? (웃음)(사례, 5)

집안의 대소사는 면접자들중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의 집안행사에 적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집 사람의 친정이 대단히 멀어요. 그래도 가끔 갔었어요.(사례 6)

우리 집안이 대가족이다 보니 아무래도 안사람이 나하고 우리집에 가는 편이 많죠.(사례, 7)

우리 집 행사에는 나와 안사람이 꼭 참여하지만, 내가 안사람 집안의 행사에는 격려금이나 보내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하죠.(사례, 9)

그러나 이혼 여성노인중 일찍 재혼해서 초혼과 유사한 결혼생활을 유지 하는 경우 양쪽 집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안사람이 집안일에 적극적이고 성실하다 보니 대화도 당연히 많아지죠.(사례, 2)

집안이 대가족인데 다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높았지만 뒤에서 우리집 아저씨

가 많이 도와 주니까 잘 해낼 수 있었죠. 부부는 서로가 대화를 잘 주고 받아야 하죠.(사례, 3)

또한 극히 적은 경우이지만 배우자의 집안에는 적극적인 반면 자신의 친정과는 소원하게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집안관계라면 친정쪽에서 내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정식구와는 멀어지고 시댁행사에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무슨일이 있으면 모두가 나를 찾기에문이기도 하고 (중략). 하지만 내가 괜히 친정을 멀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젊은 시절에 친정에 몇 번 갔었는데 몇집에서 내가 자기네들한테 말없이 떠났다고 대하는 분위기가 싫어서, 그 후로는 친정동네에 가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몇 집은 전화 연락을 하고 살아요.(사례, 5)

여가활동은 면접자들은 부부가 함께 산책, 종교활동, 영화보기, 집안일 돕기, 여행 등으로 상호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는 복지관에 자주 나가고 있지만, 안사람은 주로 집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거들어 주거나 장에 같이 가기도 하죠.(사례, 9)

우리집 아저씨의 성품이 원만한데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기때문에 당연히 산책, 영화 구경, 부부동반, 여행 그러한 활동을 같이 할 때가 많죠.(사례, 8)

특별한 것은 없고 어찌다가 같이 여행을 하거나 집안일을 거들어주거나 하죠.(사례, 13)

내가 장에 갈 때나 뒷동산에 산책할 때 같이 가거나, 집안일을 도울 때죠.(사례, 14)

그러나 신분상 부부간의 여가활동을 자제하면서 봉사하는 쪽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여목사 시절에 작은 종교단체 하나를 관리할 때보다 지금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있는데도 여기가 도시생활이 아니라 농촌이기 때문에 여가생활이 특별히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 신자방문, 산책, 행사참여 같은 것.(사례, 1)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안사람과 같이 하는 간단한 쇼핑, 산책, 지역사회와 목회활동 행사참여, 병자방문

등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사례15)

나머지 사례들에서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응답들을 수 있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인 경우 부부가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고 부부들만 단독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가 대화가 원활할수록 결혼만족이 높다는 최영아(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2) 친밀감 및 애정표현

재혼부부들은 서로가 노후에 배우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격려 속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애정표현도 개인의 특성에 맞게 조절하고 있었다.

우리는 부부가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것 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지요.(사례, 6)

지난 몇 십년간 쌓아온 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죠. 서로 같은 공간에서 말이 없어도 서로 마음속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하니깐요. 그리고 내가 집안 일이나 철학관 일로 바쁘면 스스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제 다나에 대한 애정표시인 것 같고, 또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다정하게 대해줄 때가 많아요.(사례, 5)

경제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목사님이 신자들을 사랑하시는 일 이상으로 저를 아껴주세요. 특히 목사님은 다정하시고 저에 대한 애정이 많다보니 표현들이 많이 자연스러워 졌어요. 그것은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활동을 했기 때문이고, 또 여성들이 대체로 배우자들로 부터 많이 원하고 있는 안아주는 것, 같이 영화나. 비디오 감상후 토론, 그리고 성적인 이야기 등도 부끄러움 없이 대화할 때가 있어요. 예를들면, 애정표현이나 반응에 대해 내가 어색한 태도를 보이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보시는 책자를 예들들어 설명하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중략). 가끔 서점에 들르시면 우리가 나누어 읽어볼 만한 책들을 구해오시기도 하죠. 또 내가 집안일에 지루함을 느끼는 듯하면 서울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친척집에 다녀오라고 용돈도 주세요.(사례, 1)

특히 재혼자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남성노인이 배우자와 교육수준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안사람이 비록 많이 수확하진 않았지만 진실로 나를 존경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를 들어, 식사준비, 의복챙기기, 손수 만든 보약 등 세세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때때로 미안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웃음).(사례, 12)

장로님한테 배울 것도 많고 친절하고 자상하세요. 남편없이 오랫동안 살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 많이 행복하죠. 그리고 타지에 출장이라도 다녀오시면 작은 선물이나 먹거리도 들고 들어오시고.(사례, 11)

이와 같이 이혼한 재혼부부가 초혼과 유사한 결혼지속기간을 가진 부부로서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애정을 나누고 있다. 또한 노년기 재혼은 초혼과 달리 부부가 동일 신앙을 가진 경우 친밀감이 높아 주위 사람들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별한 재혼 노인의 경우 주변 사람의 소개로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재혼을 성립한 후 경제상태와 건강이 양호할 때 그들은 결혼생활 만족이 높다. 선행연구를 볼 때, 재혼 남성들의 결혼 생활이 초혼 남성들의 온전한 결혼생활보다 더 행복하다(Lynn k. White, 1979)고 하고 있어. 위의 사례와 다른 나머지 남성노인들의 경우 결혼만족이 높은 것과 유사하며, 여성노인의 경우 선행연구의 재혼 여성들은 초혼 여성들보다 덜 행복하다(Lynn k. White, 1979)고 한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3) 경제적인 문제

일반적으로 재혼자들의 재혼동기의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었다. 재혼동기가 경제적인 이유인 사례들의 면접에 의하면 경제적인 안정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번 결혼에서 남편의 바람끼로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어요. 많은 시련 끝에 재혼을 해서 남편이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가져온 뒤로 내집 한 칸이라도 마련 할 수 있었고 (중략). 요즈음엔 아들까지도 생

활비를 보태니까 조금 더 좋아졌어요.(사례, 4)

처음 만났을 때의 어려운 시절에 비하면 결혼생활 내내 풍족하게 살아왔어요. 요즈음에도 애들이 형편대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으니깐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사례, 3)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쓰지만 돈이 남아요. 이게 우리 아저씨 집이기도 하고. 나도 생활을 알뜰하게 하고 있고.(사례, 14)

그러나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과 비교해 볼때 재혼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고, 여성노인에게 자신의 사고나 사망을 예측한 재산 및 보상금을 지불하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이제 둘이 사는데, 애들이 때때로 보태니까 도움이 크지만 자식들이 있어도 내가 안사람 앞으로 뭐라도 해주어야 하는데.(사례, 2)

내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용돈이 궁하지 않다는데도 저희들이 우리들과 따로 사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때때로 용돈이나 선물을 보내오죠. 그럼 나는 다시 그 돈을 거의 안사람에게 생활비로 쓰게 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집 사람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예요. 어찌다 나한테 재산상속 문제로 꼬박꼬박 대들 때가 있어요 (웃음). 그래서 내가 <죽기전에 당신 앞으로 집칸이라도 마련해 주겠어>라고 구두로 약속했지요.(사례, 13)

한편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이 마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와는 달리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큰 걱정은 없어요. 나와 안사람이 각각 수입이 있고, 양쪽 자녀들로 부터 때때로 용돈이 오고 있는데 (중략). 그리고 안사람이 집에서 여러가지 채소를 심어서 자급자족 하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나 내가 안사람의 신세를 지고 사는 입장이어서 뭔가를 준비해야 겠지요.(사별, 12)

그리고 재혼후 경제상태가 쉽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경우 결혼생활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생활비 마련과 잡비 지출은 내 수입과 자녀들로부터 오는 생활보조비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매달 나가는 이자비용이 많고 딸아이 교육비도 적은 편

이 아니라서 제가 부담이 크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사람이 내쪽 자식이 많아서 그런지 어쩌다 재산 문제가 오고갈 때는 긴장된 대화가 오고 갈 때도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안사람 앞으로 마련해 두면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다시 고생을 안하겠죠.(사례, 15)

선행연구를 보면, 수입은 결혼만족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 (Davidson et al, 1983; Jorgensen & Gaudy, 1980; Levinger & Senn, 1967)고 한다. 특히 재혼 노인의 경우, 이정덕·최영아(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은 수입의 증가를 가져와 결혼생활의 안정감을 높이며,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달라진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면접결과가 같다. 따라서 재혼자의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여가활동 .

노년기 부부간의 여가활동 공유는 결혼만족도와 매우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강미선, 1991)고 하며, 최영아·이정덕(2000)과 박경란·임춘희(1996)도 재혼 노인 부부의 여가활동 참여와 결혼만족은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 결혼만족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가활동 참여도는 성공적인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아서 사고, 자기개발, 그리고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부가 취미활동, 외식, 시장보기, 여행, 신앙생활 등에 참여하는 경우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서 부부가 여가생활을 통해 빠른 적응과 만족을 위해 특별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을 형성한 그 자체에서 재혼 생활의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어서는 부부가 같이 활동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서 여가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텔레비전 시청, 신문보기, 자녀들 집 방문, 그리고 날씨 좋으면 산책도 조금씩 하고.(사례, 2)

그래요, 맞아요.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산책, 부부동반, 여행, 자녀들 집 방문,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졌어요.(사례, 3)

위의 사례는 재혼이지만 초혼과 같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한 사례이다. 다음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경우 여가활동이 부부의 결혼만족을 촉진시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친척이나 동네에서 큰일 치를때 가끔 동참했고, 자식들 집에도 함께 가고.(사례, 13)

자식들 집에 뭐 좀 싸들고 가려고 준비할 때 서로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오고 가면서 외식도 하고, 시내도 구경도 하고.(사례, 14)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사회단체 여가활동이 적고 동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생활에 어려움이나 갈등이 적고 비교적 자신의 결혼생활을 만족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혼을 선택한 만큼 배우자의 존재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관은 나 혼자만 갈 때가 많지만 안사람과는 주로 집 주변의 텃밭을 같이 가꾸거나 가끔 절에도 같이 가지요. 아직도 내가 건강해서 우리는 자주 어울려 다녀요.(사례, 9)

우리집 아저씨의 나이가 많아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건강하시고 사회활동이 적극적이어서 함께 하는 일이 많아요.(사례, 10)

일단은 내가 건강하니까 안사람 가사일도 때때로 도와주고 있는데, 자주 같이 화분도 가꾸고, 강아지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는 안사람과 1년에 한 2번정도만 같이 가고 항상 친구들하고만 같이 가요.(사례, 7)

우리집 아저씨 행동반경이 넓다보니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재혼을 통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꼈어요. 다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노력하는 중이에요.(사례, 8)

또한 남성노인이 고령상태에서 질병이 있는 경우 여성의 가사일을 도우면서 끝까지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에 병이 있어서 문밖 출입은 자주 않고, 안사람 집안 일이나 돕고 자식들 집에

택시타고 가는 정도인데 가사일을 경험해 보니까 쉬운게 아니었어요. 내가 젊어서 부터 안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데.(사례, 6)

그러나 노년기 부부가 각자 개인적으로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것은 결혼만족도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강미선, 1991)는 연구결과는 재혼 부부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오랜 결혼생활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경우 함께하는 여가생활이 적을지라도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젊어서야 고생하면서도 둘이 같이 다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한쪽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활동하기가 신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혼자 활동하는 시간이 많죠. 그래도 내가 철학관 일로 바쁠 때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니까 여가정도야.(사례, 5)

선행연구(한혜신, 1996)에 따르면 재혼한 노인 부부들이라 하더라도 초혼의 부부들과 같이 남성과 여성 즉, 부부간의 여가생활이 크게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체로 재혼지속기간이 긴 노인일 수록 대체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부부우애적인 생활로 여가생활에 참여율이 높았고, 여가생활 참여에 있어 남성 노인이 여성노인에게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부부간의 여가활동의 공유는 결혼만족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부모-자녀관계

재혼자가 재혼후 자녀들과 갖는 부모-자녀관계는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1)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재혼자들은 자녀문제(친자녀, 계자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배우자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다. ① 친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친자녀는 전혼자녀와 재혼후 출생한 자녀(mutual child)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혼자녀의

유무와 동거여부는 재혼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최영아, 2003)고 한다.

지금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같이 사는데 아들이 회사에 다니니까 아침 식사 만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하고 있어요. 첫째로 아들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아버지가 이렇게 집간이라도 마련해 주었고 저희들 공부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거의 말이 없어요.(사례, 4)

위의 사례(4)의 경우 재혼여성의 자녀가 계부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하면서 친아버지에 대한 충성심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재혼후 계부가 주거문제, 생활비 마련, 자녀교육비 등을 모두 책임지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혼가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가족간의 친밀감 유지와 계부인 아버지를 수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혼을 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자녀들의 교육 및 장래문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혼자는 잠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재혼전에 딸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애가 힘들어 해요. 재혼당시에는 딸애가 나에게 <엄마가 많이 손해보는 결혼이 아닐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보니 경제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고, 사실 의붓 오빠와 언니도 많아>라고 하면서 (중략). (그리고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아)라면서 가끔 불만을 털어놓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꾸준히 제 딸애한테 편지도 쓰시고 가끔 가족회이나 대화시간을 마련하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는 동안 세월도 많이 흘렀고 형편도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아뵘든 요즘은 딸애 장래문제에 대해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사례, 1)

위의 사례를 보면, 재혼자의 자녀들과 갖는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 이전 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 이복형제자매간의 경쟁, 부모의 재혼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반응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

서 재혼 여성이 배우자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점차 좋아지는 경우 부부의 결혼생활이 안정감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만족에 자녀문제가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혼후 출생자녀(Mutual child)인 친자녀는 부모의 결혼만족에 심리적인 지지가 되고 있어 결혼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 내 친자식들이 있어야 좋죠.(사례, 2)

젊어서는 자식낳고 기르는 재미로 정신없이 살았는데, 애들이 모두 장성하니까 오랜 세월동안 몸은 고되었으나 사회적으로 내 위치가 더욱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고, 자식들이 집안 기둥들이라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되지요.(사례, 3)

② 계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혼만족에 대한 계자녀의 영향에 대해 계자녀의 존재 자체는 재혼의 성공률을 낮춘다는 가설은 무의미하다(Martin & Bumpass, 1989)고 했으며, Ihinger-Tallman(1993)은 의붓자녀의 문제의 심각성이 재혼만족과 안정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Coleman과 Ganong(1987)과 Orleans 등(1989)의 연구 결과에서도 계부모-계자녀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은 낮은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일부 결과가 계자녀와의 동거가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면접자 가운데 재혼후 경제적인 회복이 더딘 여성의 경우 남편 사후의 문제, 사실혼의 처지, 친자녀의 장애문제, 그리고 재산상속 등을 우려해서 자신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배우자의 인품, 신뢰감, 그리고 부부간의 신앙심을 토대로 부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배우자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우려는 했지만 직면해 보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안사람과 딸아이가 수도권에서 신자들로부터 주로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인지 시골생활에 적응을 쉽게 못하고 있어요. 사실 딸아이에게도 갑자기 우리가 농촌문화에 길들여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형편대로 살아야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안사람의 결혼생활 적응이 좋아졌고 딸아이의 태도가 많이 성숙해 졌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화에 참여해준 안 사람과 딸아이가 노력에 감사하죠.(사례, 15)

또한 남성노인이 배우자의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계자녀가 고령인 노부모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성인 계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도 오갈데가 없는 사람이니 함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다행히 몸이 움직일만 하니까 집안일도 돕고 그래요. 이게 모두 다 가족이지요.(사례, 12)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재혼후 재혼자의 자녀와의 관계는 새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친자녀와의 관계(이전 자녀포함)로 구분된다. 재혼자는 재혼후에도 친자녀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재혼 이전처럼 심리적인 유대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계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계부모-계자녀 관계의 질이 좋을 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최영아, 2003)에서도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친자녀와 계자녀 모두 재혼자의 결혼만족도와 비교적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노년기의 결혼만족에 자녀가 부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우기 재혼자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경우 자녀들과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에 자녀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자녀와 심리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적은 편이다.

① 친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혼자의 자녀들이 근거리에서 살면서 재혼전과 다름없이 부모와 심리적인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어 재혼후에도 친자녀와의 관계는 종전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식들 뗏이 멀리 살아도 변함이 없는데, 사실 오고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모두 바쁘니까 별일이나 없으면 되죠.(사례, 2)

애들 뗏이 가깝게 살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먼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자주 못오지만 전화라도 하니가 됐고, 그래서 몸이 해가 바뀔수록 다르지만 자식들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감도 줄어들고 있고.(사례, 3)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자신의 친자녀 집안 행사에 여전히 혼자 다녀오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 애들 집안에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는 우리집 아저씨한테 이야기하고 잠깐 다녀오죠.(사례, 14)

대개 우리 집 양반하고 같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의해서 외출 날짜를 받아 혼자 다녀오기도 해요.(사례, 8)

한편 재혼한 남성노인은 재혼후 배우자와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서 둘이 살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맞벌이들을 하는 형편이니까, 사실 자식들 기를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안사람 앞에서 자식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어색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안사람을 너무 호사시키면 자식들을 의식해야 하고.(사례, 7).

혼자 지낼때 자식들에게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한다는 사실에 대해 상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듣자하니 병원에 다니는 미혼 딸아가 \langle 지하에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 하시겠어 \rangle 라며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다행히도 위로 형제들이 자주 관심을 두니까 좋아졌어요. 아뭇튼 애들은 자주 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자식들 챙기는 것도 안사람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지요.(사례, 15)

② 계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재혼 여성은 계자녀를 양육해오면서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의 역할갈등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가 변함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친자식이건 의붓자식이건 어려서부터 차이 없이 길렀어요. 의붓자식 하나 키워내기도 쉽지 않았는데, 성격이 그런지 아버지하고만 속있는 소리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소근대는 소리에 마음이 많

이 상했어요. 아뭇튼 지금은 멀리서라도 잘 살고 있고, 나한테도 섭섭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사례, 3)

재혼한 여성 노인의 경우 재혼으로 인해 친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 결혼생활이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저씨 자녀들과도 어색하지 않아요. 나도 부지런했지만 생활이 넉넉한 탓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친정도 아저씨가 아시고 계시지만 괜찮은 집안이라서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끔 내 스스로 친딸들에게 많은 도움을 못주고 편하게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친자녀들과 대화가 뜸할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사례, 8)

그러나 재혼여성이 계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후,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전 어머니가 다시 재결합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충성심 갈등 및 태도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자식들을 기를때 내 친 자식처럼 길렀어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고 저희들도 나한테 잘하지만, 이 애들이 어른이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고 남편 없이 혼자 고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집 양반하고 \langle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 \rangle 는 소리를 전해 듣고 눈앞이 캄캄했죠. 아뭇튼,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배신감 때문에 줄 담배를 이렇게 피워대고, 그로 인해 때때로 속끓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도 우리집 아저씨가 변함없이 잘 해주었고 부처님께 많이 의지해서 인지 이만해요 (중략). 그래도 내가 부모의 도리상 여전히 자식들한테 잘하니가 변함은 없지만, 때때로 부모-자녀간에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사례, 5)

3)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

사회가 구성된 이래 재혼가족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가 부부의 결혼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국내 어느 연구분야에서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미미한 관련 연구(장혜경·민가영, 2002)⁹⁾를 보면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가 총 6사례중 단지 1사례가 부부의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언제 재혼했던 지 간에 재혼자의 노년기 결혼만족과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면접조사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사례는 여성노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애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이다.

우리 딸애가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고, 그들이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거의 없어요. 가끔 언니 오빠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예뻐라고 하지만, 일전에 딸 애가 <엄마 고생하고 산다>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유산의 몫이 안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위로 언니·오빠를 경쟁상대로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게 부딪치거나 대화를 피하지는 않기 때문에, 목사님과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어요.(사례, 1)

위의 경우는 이복형제자매가 한 집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재혼가족에서 볼 수 있는 자녀간의 마찰이나 갈등은 엿볼 수 없었으나, 관련 연구를 보면 최근 계부(모) 가족내의 청소년의 적응은 가족과정변수와 관련이 많다(Kurdek & Fine, 1993; 임춘희, 1996 재인용)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청소년이 자신의 모와 계부의 부부관계가 좋을 수록 계모와 계녀의 관계는 긍정적이지 못하며 계녀의 심리적 적응이 낮다(Brand, Clingempeel, 1987)고 밝혀진 것으로 보아 <사례 1>과 <사례 15>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례의 경우 재혼부부가 어려서 부터 장기간 한 집에서 자란 이복형제자매들간에 있을 수 있는 경쟁, 싸움, 양보 등의 문제를 잘 조절함으로써 자녀들간의 관계가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친자녀와 같이 동등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성공적인 재혼가족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온 그간의 결과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부부가 구분없이 길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전의 이야기이지만 때때로 재산문제 이야기가 있을때 부모로부터 누가 애정을 더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간의 약간의 시기심이 오가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가정을 잘 유지해와서 그런지 자녀들간의 갈등이 심하다거나 그런일은

없어요. 또 나이 차이도 많고, 요즘에는 저희들끼리 객지에서 가끔 만나기도 하고 잘 지내니까, 오히려 자식이 많아서 좋죠.(웃음)(사례, 3)

그리고 이복형제자매들이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이전 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그에 따른 혈연의식으로 가정밖에서 이복형제자매들이 만나는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집 아들은 밖에서 이전 남편의 자녀들과 가끔 만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약간씩 하거든요? 집에는 데려오지 않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친애비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싶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처신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외로워 보이지 않아서 좋아요.(사례 4)

특히 본 조사대상자들의 재혼자들이 대체로 노년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입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 지지하거나 부양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듯, 오히려 자녀들간의 마찰보다는 서로 예의를 지켜가며 자녀로서의 역할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쪽 집 자녀들이 서로 빈번한 왕래는 없어요. 그러나 1년에 2-3번 정도 명절이나 생신 때에 처지대로 양쪽 자녀들이 사전에 연락해서 모이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든든해요. 모두가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요.(사례, 8)

우리는 양쪽 모두 자녀들이 많아도 각자 잘들 살고 있고, 아직 나한테 손벌리는 애들이 없으니까 좋은데, 단지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죠.(사례, 9)

우리집 아저씨가 겸손하셔서 그런지 자녀들도 우리에게 공손해요. 집안 행사나 명절이 되면, 그쪽 자녀가 우리 집에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주는 자녀도 있고(웃음), 우리 집 애들도 바빠서 꼭 명절이나 생신에만 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오기도 하고, 아뭏든 양쪽 집 자녀들이 우리가 이

9) 장혜경·민가영(2002)은 노년기 이전의 재혼가족의 갈등 및 적응조사에서 총 15명의 조사대상자가 응답했다. 이중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는 6사례가 관련이 있었다.

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모두가 다행으로 알고 있어서(중략).(사례 11)

보시다시피 안사람 딸과 한 집에서 살지만 성인자녀 일지라도 구분없이 내 자식으로 알고 살아요. 오히려 자녀들이 없는 것보다 많으니까 좋아요.(사례, 12)

따로 각각이 사니까 우리가 자녀들간의 일에 대해 일일이 알 수 없지만 서로간에 행사때면 잠깐 왔다 가는데, 아직 뭐 속상할 일이 없죠. 첫째 우리가 저희들의 신세를 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자녀들간의 마찰은 없을거예요.(사례, 13)

우리는 자녀들 문제로 불편이 없어요. 오히려 명절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한 상에서 같이 밥먹게 하고, 똑같이 보따리, 보따리 틀러 보내고 하니까.(사례, 14)

언니 오빠들이 모두 성숙하니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많이 예뻐하고 그래서 아직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서 앞으로 위로 오빠 누나들의 간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중략).(사례, 15)

그러나 면접자중 초혼과 재혼 모두 자녀를 두지 않았고, 재혼후 배우자의 자녀만을 친자녀처럼 양육시킨 경우로서 이복형제자매관계가 없는 사례를 놓고 볼 때, 여성노인의 입장은 노부모-자녀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클 수도 있다.

내 입장은 자녀들간의 관계로 어려움이야 없지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으로 알고 정신없이 키울때의 그 심정은 말로 다 못해요. 이제 자녀들이 내 곁을 떠나 가정을 가지고 있다보니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또 자식들이 저희 친모와 연락을 하고 산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 솔직히 내심정이 항상 편치 않아 출담배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내가 키운 자식들이 착하기 그지 없고, 나도 철학관에서 아직도 별이가 있고 집간이라도 있어서 사는 것이야 이만하면 되지만 아직도 내가 어느 경우에도 우리집 아저씨를 빼앗길 일이 있다면 그것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테니까. 내가 그로 인해 잠 못 이루었던 순간들이 어디 적었겠어요. 요즘에는 나도 나이가 많아졌고 몸도 자꾸 약해가는데 <스스로 복을 지어야지...>라면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족과 세상에 베푼 사랑이 어디 가겠어요? 나에게 돌아오지.(사례, 5)

안 사람 자식이 없으니까 내자식 가지고는 속상할 일 없어요.(남자, 6)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면접결과를 보면 노년기 재혼가족내의 이복형제자매간의 문제가 사례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고, 성인자녀들이 인생을 보는 안목과 부모의 부양, 즉 병수발·식사준비·선의적인 간여·세대간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극복하기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자녀들이 죽은 부모에 대해 의리나 재산 분배에 대한 문제, 세상사람들의 비판때문에 노부모의 재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이윤숙, 1983). 또한 젊은 이의 초혼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만, 반대로 노인의 재혼은 자녀의 이해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한혜신, 1996) 과정에서 자녀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 재혼시 젊은 배우자를 얻게 되거나 자녀를 동반한 결혼생활이 있는 경우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마찰은 잠재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라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4) 사회적 지지¹⁰⁾

가족은 사회의 하위체계로서 가족의 각 측면들은 광범위한 사회체계와의 연대속에 놓여있게 된다.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인 E. Bott(1971)는 사회적관계망의 개념을 <Family and Social Network>에서 암묵적으로 가족구성원이 외부사회와 맺고 있는 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이성희, 1993 재인용). 재혼자들은 이러한 사회관계망을 통한 물질적·심리적·도구적 지지¹¹⁾ 요인들의 관계에 따라 결혼생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고 있다.

10) 사회적 지지란 일상생활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도움을 교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 범주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단체로 규정한다.

네~, 저도 현재의 결혼생활이 친한 친구나 이전에 같이 활동한 목회자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의 신자들의 지지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서울에 가면 두루두루 방문하고 오죠. 또 전화로도 서로 소식을 나누고 있어요.(사례, 1)

나는 재혼을 했어도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예요. 왜냐하면 재혼후에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저씨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솔직히 털어놨죠. 그러나 우리집 아저씨는 크게 역정을 내시지 않았어요. 글썽 <나에게 말 못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라고 하시면서 (중략). 아뭏든 저는 재혼하기 잘했어요. 자식들과 주변으로부터 섭섭한 대우를 받지 않고 사니까.(사례, 10)

그런데 재혼 여성은 자녀들과 며느리의 심리적인 지지도 중요하지만 도구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보다 더 친밀한 감정교류를 느끼고 있다.

나는 우리집 아저씨를 만난후로 무척 노력했어요. 차츰 인정을 받게 되자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요즈음엔 아들, 며느리, 딸아이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잘 따르고 집안일도 저희 스스로 도와줄 정도로 친부모와 자식같이 불편없이 지내고 있어요.(사례, 5)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자기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했어요. 처음 몇 년은 시대식구의 기본에 우리의 생활이 좌우되었지만, 인정을 받게 된 후로는 수월했어요. 요즈음은 자식들이 온다고 전화해 오면 기쁘면서도 힘이 모자라 걱정이었는데 차츰 며느리나 딸들도 눈치빠르게 곤잘 일을 거들어요.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 정이 더 깊어지는 게 사실이고.(사례, 3)

한편 면접한 남성 노인 대부분은 재혼 이전과 재혼후의 결혼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나야 자식들은 잘 커주었으나 전처가 일찍 세상을 떠서 상심이 컸어요. 그러나 주변의 소개로 좋은 안사람을 만나서 그후 수십년을 같이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안사람이 부지런해서 부모노릇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고, 자식들도 지들 어머니한테 잘하고.(사례, 7)

안사람을 잘 만난 편이지요. 우선 안사람이 처세를 잘 하고 있어서 친구나 이웃들과 왕래가 많고, 친척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요.(사례, 2)

저의 재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목사님이 혼자 활동하시니까 우리들이 힘이 빠져요>라면서 재혼을 권했죠. 사실 그러한 관심속에서 얼마나 새로운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다 주님의 뜻이지요.(사례, 15)

이상과 같이 재혼자의 결혼만족은 안정된 재혼성립 과정을 거쳐 재혼후 새배우자와 그의(그녀의) 가족구성원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수행하는 경우 결혼만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개발원(1993)에 따르면 노부부의 결혼적응이나 결혼만족 등은 대체로 결혼초기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이어 중년기에도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웠던 부부는 노년기에도 심리적·환경적 적응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으므로 계속 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재혼자의 결혼성립 과정과 결혼만족과의 관계는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본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최근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혼율에 따라 노년 초기 재혼자의 결혼성립 과정과 결혼만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재혼자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고자 재혼한 남녀노인 15명(남성노인 7명, 여성노인 8명)의 재혼과정과 결혼만족도를 알아 보았다. 심층면접 조사 방법을 통해 살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노년 초기 재혼자의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노인은 거의 사별과 이혼의 9:6의 비율로 인해 재혼하였으며, 남성노인은 이전 부인과 사별후 거의 6개월~3년 이내에 재혼하였다. 재혼지속기간은 최하 6년~최고 42년까지로 평균 22년

11) 도구적 지지란 사회적 지지의 관계망에 관련된 사회적, 개인적 성원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원조의 내용으로서 금전, 물품, 서비스, 집안 일을 돕는 것 등의 도움을 의미한다.

이었으며, 재혼당시의 연령은 50대가 6명, 30대가 5명, 60대가 2명 순으로 많았다.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는 남성노인은 2세~13세까지, 여성노인은 3세~13세까지로 평균연령차는 남성노인이 6세, 여성노인은 8세였다. 또한 재혼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거나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끝으로 조사대상자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지지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완전히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혼과정

재혼의 선택의 잇점은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해 홀로된 사람이 이전 배우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친밀하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며, 부정적인 예측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노년 초기 재혼자의 재혼동기와 재혼당시의 상황을 파악해 볼 때, 남녀노인 모두가 거의 외로움 극복, 경제적 보탬, 상대방에 대한 사랑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재혼을 서둘러야 하는 실질적인 상황요인이 작용하였다. 특히 남성노인은 여성노인보다 재혼을 자신의 의지로 하는 성향이 높았고 홀로산 기간이 짧았다. 그러나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상황이 급하지 않았으나 친정에 오래 머물러 있을 처지가 아니거나 남편의 여자문제에 의한 가정소홀 및 별거와 이혼 및 사별후 홀로 지내가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재혼하게 되었다.

(2) 배우자와의 만남 및 선택기준에 관련하여서는 남성노인의 경우를 먼저 볼 때 상대방의 건강, 성격, 사람됨됨이를, 여성노인은 상대방의 경제력과 건강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은 양쪽 모두 결혼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는 유형의 만남이 아니고 일정기간 교제를 통해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방법을 택했다.

(3)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관련하여서는 남성노인을 중심으로 보면 자신이 재혼을 결정하거

나 이성교제를 통해 상대방을 파악한 후 자녀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혼후 자신의 이미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

(4) 재혼결정에 관련하여서는 면접결과를 보면 대체로 친구나 주변 사람의 소개나 권유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던 자신의 의사결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후 자녀에게 양해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는다.

3) 결혼만족

(1) 노년 초기 재혼자의 부부관계에 관련하여 재혼자의 결혼생활에서의 부부만족은 ① 의사소통이 부부가 초혼과는 달리 이해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② 친밀감 및 애정표현은 배우자의 만남과 선택기준이 물질 기준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신뢰·그리고 존경 등이 부부사이를 가깝게 해 주었고 초혼과 흡사한 애정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경제적인 문제는 약 2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성노인이 경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재혼부부의 경제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④ 여가활동은 재혼부부가 고령인 경우와 사회단체(복지관, 종교기관)를 여건상 빈번하게 출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의 결혼생활중 여가활동이 부부의 대화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 결혼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부모-자녀관계에 관련하여서는 노년 초기 재혼자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친자녀(전혼자녀 포함)의 경우는 노부모와 이전과 같이 거의 친밀한 관계유지와 심리적인 유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계자녀의 경우는 상호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노부(모)가 상대의 전혼자녀와는 소원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의붓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긴장감이나 불편한 심정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자신의 모(부)와 새로운 부(모)가 부부관계가 좋은 경우 자신과 친밀한 모를 계부에게 빼앗겼다가 자신의 모가 계부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일시적인 부적응 현상을 통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신앙심을 토대로 자녀에게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자녀와 동거하는 않는 경우에 친자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혼한 노부모에게 집중과 왕래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친밀감이나 심리적 유대감이 초혼과 같이 지속적이었으나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 보다 친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잦은 왕래보다는 전화를 통한 안부가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계자녀의 경우는 우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덜거나 병수발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결혼생활에 그분들의 간여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노부모에 대한 존중감과 의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갈등유발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3)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에 관련하여서는 이복형제자매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함께 거주했다 하더라도 계부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장후 성인이 되어 분가했기 때문에 일반 재혼가족에서 볼 수 있는 자녀들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거의 없어 결혼만족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인 경우 앞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재혼가족내의 청소년의 적응은 가족과정변수와 관련이 많은 점을 비추어볼 때 청소년이 자신의 모와 계부의 관계가 좋을 수록 모와 계녀와의 관계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재혼노인의 자녀들은 대부분 기혼자이었기 때문에 설령 소수의 미혼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연령이나 사회적인 성숙도가 달라 가족간의 갈등이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기 재혼자의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는 재산상속, 호적상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노모(부)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마찰이 없는 경우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에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재혼자는 자녀,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재혼자의 결혼만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부모-자녀 관계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노년기 재혼자가 지속적으로 자녀들로 부터 심리적·물질적·도구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고 지지를 구하는 경우 재혼후에도 초혼때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유대감 형성, 정서적 안정, 그리고 혈연적 존재의미의 재구축 과정을 통해 친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계자녀와도 부부와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와 요약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1) 결혼성립 과정은 혼인을 맺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러한 절차는 재혼자의 재혼동기가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나 이성교제를 통해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홀로된 사람이나 재혼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혼은 성공적인 삶의 방안이 될 수 있다.

1-2) 배우자의 선택기준에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건강, 성격, 사람됨됨이,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내세우는 경향과 재혼자 쌍방이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새로운 삶이나 여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는 것으로 볼 때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는 내적인 성숙과 준비,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이성교제를 통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1-3)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관련하여서는 남녀 재혼자 모두가 상대방과의 결혼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이성교제를 통해 상대방을 파악한 후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재

혼예정자들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약화되기 쉽고 둘만의 관계로 몰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노년기 재혼의 경우 자녀들의 노부모의 재혼에 대한 편견과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사회속에서 정착되어가는 규범적 생활양식으로 부모님의 남은 여생동안의 심리적 안녕이 무엇인지를 부정적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4) 재혼결정에 관련하여서는 남성의 경우 대체로 여성보다 재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 재혼자는 결혼을 목적으로 상대방과의 교제기간을 통해 혼인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대체로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건강, 자녀와의 의견조율, 자녀양육 문제, 배우자와의 거처, 그리고 경제적 여건 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1) 노년 초기 재혼자의 부부관계는 대체로 초혼보다 이해와 양보를 토대로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된다는 점과 최근들어 노인 부부만이 단독생활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녀들은 노부모를 어려워하거나 거리감을 두기보다는 적절한 왕래나 친밀감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안정된 결혼생활과 소속감 부여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2) 노년 초기 재혼자의 부모-자녀관계는 친자녀와는 대체로 재혼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부모가 단독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자녀와의 이전과 같은 심리적 유대감을 위해 자식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 남성 재혼노인의 경우 새배우자와 친자녀와의 관계는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간의 관계가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자녀들 역시 노부모에 대한 호칭문제나 자녀로서의 도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소 경제적인

지원과 서비스적인 원조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2-3) 노년 초기 재혼자의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는 자녀들이 쌍방의 노부모에게 미풍양속에 따라 새배우자와 건강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즉 평소 양측의 자녀들은 재혼가족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의 변화추세에 따라 서로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와 수용이 필요하다. 특히 재혼전·후에 자신의 자녀가 없는 여성 재혼자는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여 건강 유지, 재산관리, 자녀를 포함한 친족과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유연한 사고와 관계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4) 노년 초기 재혼자의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결혼성립 과정과 관련해서 재혼당시 결혼결정에 도움이 된 사람이나 친자녀들이 결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친척, 주변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재혼은 간소한 형식의 결혼식 또는 공식적인 결혼절차를 거쳐 재혼자 또는 노부모가 가족의 재구성과 정당한 결혼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요약, 그리고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연구의 한계와 이와 관련된 다음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특정한 결혼시기를 한정하지 못한 점과 사례조사를 위한 인터뷰지침서가 재혼자의 재혼전과 재혼후의 개인사, 가족관계, 그리고 결혼만족에 관련된 질문내용이 보다 주관적인 경향을 배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2) 재혼자들의 부부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호적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재혼전의 약속이 얼마나 실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과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결혼만족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혼은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에는 혼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이혼한 경

우에는 초혼과 사별한 경우보다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가 있다. 이에 관련하여, 재혼가족의 하위체계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로만 알고 있으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복형제자매간의 관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재혼가족의 이전 가족관계와 친족관계,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 결혼적응, 행복감, 그리고 결혼의 질에 중요한 요인일 것이므로 재혼가족내의 어려운 점을 밝혀내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선(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4).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 김연옥(1999). 재혼가정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가족복지학, 3, 1-22.
- 김태현,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8-38.
- 김혜숙(1986). 제주도의 이·재혼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22, 411-431.
- 박경란, 임춘희(1996). 재혼노인의 재혼과정과 생활 변화. 인제대학교 인제논총, 12(2), 657-684.
- 박은주(2004).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간(1979).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 출판사.
- 박충선(2001).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해체와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변화와 위기의 아동. 2001년도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7-14.
- 서문희(1993). 부인의 이혼과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결혼 관련 요인. 보건 사회논집, 13(2), 1-19.
- 서병숙, 김은진(1996). 홀로된 여자노인의 재혼태도 연구. 한국노년학회 추계정기학술발표회 발표논문, 95-112.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5). 가족과 한국 사회. 서울: 경문사.
- 유계숙(2004). 중앙일보 7. 6일자: 힘든 선택 뒤 재혼, 더 힘든 고비.
- 윤 영(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1993).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숙(1983). 노인과 性: 성과 문화.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 재단, 172-175.
- 이윤숙(1990). 노인과 性: 노인문제 논문·논설집, 238-256.
- 이정덕, 최영아(1997).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5(2), 255-272.
- 임춘희(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춘희(1997). 재혼한 남자노인의 재혼가족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133-134.
- 임춘희, 박경란(1997). 노년기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83-200.
- 장혜경, 민가영(2002).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연구보고서, 240-11.
- 전춘애, 유계숙, 천혜정(1998).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학술대회.
- 조기동(1993). 혼자사는 노인과 재혼. 한국노년학회지, 13(2), 153-162.
- 조연제(2003).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 경향. 전주대학교 국제상당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라(1996). 재혼, 그 또 다른 시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153(6), 1-24.
- 중앙일보. 2004. 7. 6일자. 힘든 선택 뒤 재혼, 더 힘든 고비.
-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 최영아, 이정덕(1996). 홀로된 노인의 성의식과 재혼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207-220.
- 최영아, 이정덕(2000).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II. *한국가족복지학회지*, 5(2), 87-108.
- 최영아(2003). 재혼자의 노년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인구동태 통계연보. 혼인·이혼통계편.
-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노인. 교육자료 300-22.
- 한혜신(1996). 사별노인의 삶의 대처방안으로서의 재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grad, R.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late-life Remarriages.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Denver.
- Brand, E. & Clingempeel, W. G. (1987). Interdependencies of Marital and Stepparent-Step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Research Findings and Clinical Implications. *Family Relations*, 36, 140-145.
- Cater, H. & Glick, P. C. (1976). *Marriage and Divorce: A Social and Economic Stud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3), 634-650.
- Coleman, M. & Ganong, L. H. (1987). *The cultural stereotyping of stepfamilies*.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Guilford Press, 9-41.
- Coleman, M. & Ganong, L. H. (1989).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the 1980s: Increased Interest in an Old Family For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25-940.
- Coleman, M., Ganong, L., & Fine. (2000).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88-1307.
- Davidson, B., Balswick, J., Halverson, C. (1983).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A test of Equity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93-102.
- E. Bott (1971). *Family and Social Networks*(New York: The free press).
- Enright, R. B. (1994). *Perspectives in Social gerontology*. Allyn & Bacon, Inc.
- Ganong, L. H.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 Sage Publications.
- Jorgensen, S. R. & Gaudy, J. C. (1980). Self-disclosure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The Relation Examined. *Family Relations*, 29, 281-287.
- Kurdek, L. & Fine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young adolescents's appraisals of family climate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14, 279-290.
- Levenger, G. & Senn, D. J. (1967). Disclosure of Feelings in Marriage. *Merrill-Palmer Quarterly*, 13, 237-249.
- Martin, T. C. & Bumpass, L. L. (1989). Recent Trend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 Mckain, W. C. (1969). *Retirement Marriage*. Storrs, CT: Storr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 of Connecticut.
- Mckain, W. C. (1972). A New Look at Older Marriages. *The Family Coordinator*, 21, 61-69.
- Olson, D. H., DeFrain, J., & Olson, A. K. (1999). 21세기 가족문 화연구소 편역. (2002).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양서원.
- Orleans, M., Palisi, B. J., & Caddle, D. (1989). Marriage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f Stepfathers: Their Feelings and Perceptions of Decision Making and Stepchildren Relations. *Family Relations*, 38, 371-377.

- Pasley, K., Koch, M., & Ihinger-Tallman, M. (1993). Problems in Remarriage: An Exploratory Study of Intact and Terminated Remarriag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0, 63-83.
- Skeen, P. I., Covi, R. B., & Robinson, B. E. (1985). Step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Suggestions for Practition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121-125.
- Vinick, B. H. (1978). Remarriage in Old Age. *The Family Coordinator*, 27, 359-363.
- Walsh, W. (1992).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709-715.

(2004년 10월 15일 접수, 2005년 2월 25일 채택)